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2] 다음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관련 법이 발효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애초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의 휴일 영업을 규제하자며 도입한 것이지만, 이 법이 전통 시장을 살리려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명한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박사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취지는 전통 시장을 살리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전통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강 박사 :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는 대형 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고 시민들이 전통 시장에서 쇼핑하도록 유도하여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보도된 것을 보면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 매출도 10~2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 규제 취지와는 달리, 시민들의 대형 마트 이용도 줄고 전통 시장 이용도 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강 박사 :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0%가 대형 마트 휴무일에 아예 쇼핑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결국 목적과 다르게 전통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요,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정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 의무 휴업 때 전통 시장의 매출액이 정상 영업 때와 비교해서 10.4%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박사 : 네. 이 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 시장의 매출 증가는 대형 마트 매출 감소분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다수의 구매자들이 쇼핑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전통 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고, 전체적인 소비 감소와 소비자의 선택권만 제한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만일 전통 시장 활성화의 효과만 높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조금 위축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 박사 : 물론 그렇죠. 저처럼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비자 선택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서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형 마트 때문에 전통 시장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그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영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사회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 박사 : 그것은 일단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에 굉장한 침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 주중 휴일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사회자'와 '강 박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상대방 발화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들어 질문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강 박사가 한 발언의 요지를 정리하고 있다.
③ 강 박사는 자신의 발언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강 박사는 사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고 있다.
⑤ 강 박사는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방송을 청취한 후 부부가 나눈 대화이다. 위 대화(A)와 <보기>(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남편 :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내 : 그러게요. 우리라도 가급적 전통 시장을 이용해야겠어요.
남편 :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이용할 만한 전통 시장이 있어요?
아내 : 몇 군데 있어요. 저번에 봐 둔 곳이 있으니 내일 가 볼까요?

- ① A는 B와 달리 특정한 대화 목적을 미리 설정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② B는 A와 달리 사전에 계획된 일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받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③ A와 B는 모두 경어적 언어 표현이 제한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④ A와 B는 모두 가상의 청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⑤ A와 B는 모두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3~5]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요즘 우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구청 교통 정책과 최○○ 과장님과 한국 대학교 행정학과 윤○○ 교수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중간에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 과장 : 최근 도심과 우리 마을이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고, 명문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 우리 구청 관할 지역 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미 공영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관내에는 공영 주차장을 새로 만들 여유 부지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자 : 주민들의 유입은 느는데 주차 수요를 충족할 만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어제 주차할 곳이 없어 아파트 주변을 삼십 분 이상 돌면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윤 교수 : 우리 마을이 살기 좋아짐에 따라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다만 주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으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우리 마을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를 반드시 주차장에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 기관의 시설물 일부를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주차의 어려움은 대부분 주민들이 퇴근한 후인 야간에 나타납니다. 야간에는 공공 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종료된 후이므로, 공공 기관의 시설물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예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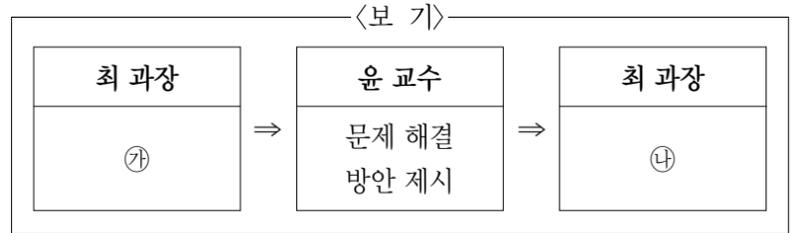
사회자 : 야간에 공공 시설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우리 마을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시군요. 최 과장님, 윤 교수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추진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최 과장 : 우선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야간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 시설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양해가 선행되어야겠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상을 잘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방청객을 확인한다.)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신 학생 말씀해 주세요.

학생 대표 : 저는 △△ 고등학교 학생회장 정○○입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우리 마을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학교 운동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자 체육 수업을 받는 학습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개방된다면 운동장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을까요? 또한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3. 위 토의에서 진행된 논의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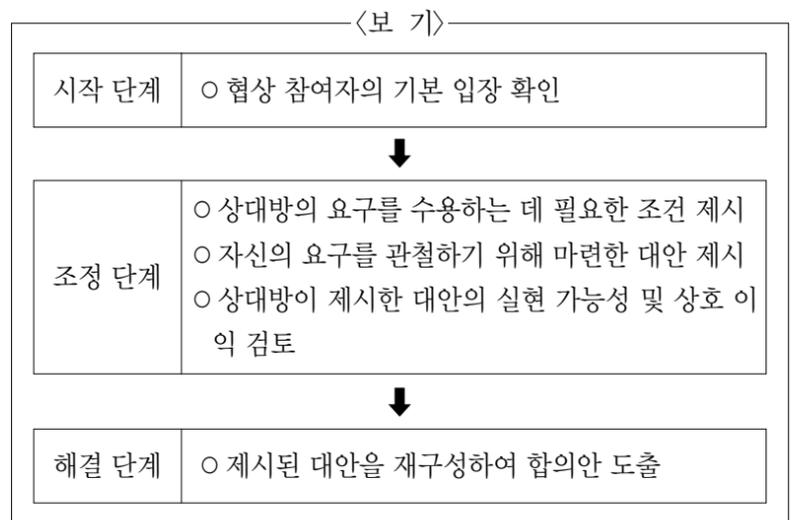


- |                 |              |
|-----------------|--------------|
| ㉠               | ㉡            |
| ①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 ②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방안의 장단점 비교   |
| ③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방안의 장단점 비교   |
| ④ 정책 실행의 어려움 제시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 ⑤ 정책 실행의 어려움 제시 | 최선의 해결책 선택   |

4. 위 토의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발언자의 발언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 ③ 윤 교수는 한자 성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최 과장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학생 대표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을 발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5. ‘최 과장’과 ‘학생 대표’가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을 쟁점으로 <보기>의 절차에 따라 협상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해야 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최 과장 : 학생 대표에게 운동장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 ② 최 과장 : 학생 대표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 ③ 최 과장 : 공공 시설물 활용이 주차난 해소의 대안이 된다는 데 학생 대표가 공감하도록 설득한다.
- ④ 학생 대표 : 최 과장이 제시하는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 ⑤ 학생 대표 : 최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검토한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 기〉—

〈작문 과제〉 :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쓰기

〈학생의 초고〉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이다. 더욱이 산업의 발달로 수자원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유엔 보고서에서는 이미 1990년에 리비아, 모로코 등 7개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세계 평균치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노출되었다. 2001년 봄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86개 시·군에서 30여만 명이 급수 중단 혹은 제한 급수 등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빈발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보았으며, 한강·낙동강·금강 할 것 없이 물 배분과 수질 문제로 지역 간·집단 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 강수의 2/3가 여름철에,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런 수자원의 계절별·지역별 편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이상 기후와 환경 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등 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렵게 확보된 수자원이라도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투자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은 일단 오염되면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물 절약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의 비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상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 ③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 ④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⑤ 문제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7.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우리나라의 경우 대수층 발달이 미약하여 지하수 개발이 어렵다. 우리와 수자원 특성이 유사한 일본은 230여 개의 크고 작은 댐들을 건설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우리 소양강 댐의 27배에 달하는 삼협 댐을 비롯하여 30여 개의 댐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수가 계절적·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나) 세계 댐 위원회의 연구에서는 큰 댐의 경우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 공급의 19%를 담당하고, 온실가스 방출 감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천의 숲, 야생 생물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의 훼손, 지역 주민 강제 이주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 건〉—

-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할 것.
- (나)에 드러난 현상에서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댐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댐을 건설할 때는 환경과 인간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 ② 따라서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댐을 건설할 경우, 생태 공원 및 자연 학습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 ③ 따라서 댐을 적극적으로 건설하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댐을 건설할 때는 광역 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 급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댐의 건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⑤ 따라서 수자원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물 관리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물 문제는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닌 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므로 국민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 윗글의 내용을 학급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전략	실행 계획
청중이 발표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도입 부분에 '물 부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화제를 명시적으로 밝혀야겠어. .... ㉠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예상되는 물 부족 양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겠어. .... ㉢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한다.	→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여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절히 추가해야겠어. .... ㉡
청중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한다.	→ 동영상을 통해 식수가 부족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어. .... ㉣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 수자원 대비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야겠어. .... ㉤

- ① ㉠
- ③ ㉢
- ⑤ ㉤

- ② ㉡
- ④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향기가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 1

- (가) 강의에서 언급한 '족'과 '탁'의 관계를 현실과 학문적 이론의 관계로 유추하여 교훈을 담아 보자.
- (나)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 문단으로 글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을 고려하여 '향기가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밝히고 ㉡ 강좌의 진행 순서와 방식을 소개하며, ㉢ 강좌를 듣고 느낀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 강좌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결점을 제시하고 ㉤ 강좌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끝맺을 것.

9. <보기>는 위 프로그램의 강의의 일부분이다. **작문 과제 1** 을 수행한 학생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번 시간에는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신을 사러 장에 갔습니다. 신발 가게에 당도한 그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치면서 “아뿔사, 이 일을 어쩌나. 내 발을 본 때 둔 종이를 두고 왔네.” 하면서 난감해하였습니다. 신발 장수는 “아니, 자기 발에 신어 보면 될 것을 웬 종이 타령이요?” 하자 사나이는 “믿을 만한 게 직접 대고 그린 종이보다 더한 게 있겠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발을 살 때 직접 자신의 발, 즉 ‘족’에 맞는지 신어 보고 사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족을 대고 종이에 그린 ‘탁’을 갖고 사는 것이 정확할까요? 그렇습니다. 족을 버리고 탁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문도 이와 같습니다.

- ① 학문적 이론은 현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 이익 때문에 학문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얻게 된다.
- ② 학문적 이론은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론 추구는 경계해야 할 자세이다.
- ③ 현실에 대한 학문적 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이론을 고집하는 행위는 학문하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태도이다.
- ④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진리는 학문적 이론과 구체적인 현실의 조화에서 수립될 수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진리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 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적 이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현실에 파묻혀 이론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

10. <보기>는 **작문 과제 2** 를 수행한 학생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인 나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 '향기가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라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오전의 1부 강좌는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주제로 한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오후의 2부 강좌는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참여자 간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맞은 강의 시간, 하얀 머리와 수염에 넉넉한 웃음으로 강단에 오르신 선생님께서서는 인문학에는 철학, 문화 등 인간의 모든 삶에 관한 학문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니 인문학이란 우리 삶의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인지 점심을 먹고 나니 나른하고 졸렸다. 하지만 여러 학생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인문학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보람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철학과에 진학하여 체계적으로 학문을 닦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 ① ㉠
- ③ ㉢
- ⑤ ㉤
- ② ㉡
- ④ ㉣

11. <보기>는 음의 길이에 관한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긴소리인 체언은 결합되는 조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든 모음으로 시작되든 관계없이 언제나 본래의 긴소리대로 발음한다.
  - ㉡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 긴소리로 발음한다.
  - ㉢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짧게 발음한다.
  - ㉣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짧게 발음한다.
  - ㉤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 : ‘말[말:]’은 ‘말과 글’일 때 [말:과]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
- ② ㉡ : ‘저것 좀 봐.’에서 ‘봐’는 [봐:]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
- ③ ㉢ : ‘아이를 안아 주었다.’에서 ‘안아’는 [아나]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 ④ ㉣ : ‘몹시 배를 주리고 있었구나.’에서 ‘주리고’는 [주리고]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 ⑤ ㉤ : ‘눈가루’는 [눈:가루]로 ‘눈’을 길게 발음하고, ‘짜락눈’은 [짜랑눈]으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질문] ‘일이 뜻대로 돼 간다.’와 ‘일이 뜻대로 되 간다.’ 중에서 ‘되다’의 맞는 표기가 무엇인가요?
- [답] 한글 맞춤법 조항 제25항의 붙임에 따르면, 어간 모음 ‘되’ 뒤에 ‘-어’가 붙어서 ‘돼’로 줄 때에는 준 형태인 ‘되’로 적습니다. ‘되다’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 ‘되면’이나 ‘되고’와 같이 ‘되-’의 형태로 쓰고, ‘-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여 준 형태로 쓸 경우 ‘돼’로 씁니다. 그러므로 ‘되어’의 준말인 ‘돼’가 쓰인 ‘일이 뜻대로 돼 간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되다’ 이외에 어간 모음이 ‘되’로 끝나는 동사로는 ‘되다, 괴다, 쇠다, 죄다, 찍다’ 등이 있습니다.

- ① 선생님, 내일 백요.
- ② 그는 지계를 벗어 작대기로 꿘다.
- ③ 설을 쇠면 이제 곧 스물이 됩니다.
- ④ 이렇게 나사를 췌서 고정해야 한다.
- ⑤ 햇별을 너무 많이 췌도 건강에 해롭다.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관형절은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절이다. 관형절은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을 결합하여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관형절을 만드는 기능과 함께,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보기 2>—

ㄱ. 엄마, 저 공부하는 중이에요.  
 ㄴ. 얼마 전에 산 책을 잃어버렸어.  
 ㄷ.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ㄹ. 몸이 찌뿌둥한 걸 보니 아플 모양이다.  
 ㅁ. 세상에, 꼬마이던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군.

- ① ㄱ에서 ‘-는’은 동사 ‘공부하다’와 결합하여 현재를 나타낸다.
- ② ㄴ에서 ‘-(으)ㄴ’은 동사 ‘사다’와 결합하여 과거를 나타낸다.
- ③ ㄷ에서 ‘-(으)ㄴ’은 형용사 ‘좋다’와 결합하여 과거를 나타낸다.
- ④ ㄹ에서 ‘-(으)ㄹ’은 형용사 ‘아프다’와 결합하여 미래를 나타낸다.
- ⑤ ㅁ에서 ‘-던’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과거를 나타낸다.

1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현대 국어
ㄱ	겨 <sup>ㅅ</sup> ㅅ 서서	곁에 서서
ㄴ	그 <sup>ㅅ</sup> ㅅ 숲 사람 <sup>ㅅ</sup> ㅅ 무로 <sup>ㅅ</sup> ㅅ	그 마을 사람에게 묻기를
ㄷ	저근 <sup>ㅅ</sup> ㅅ에 올오리라	작은 배에 오르리라
ㄹ	입시 <sup>ㅅ</sup> 올와 <sup>ㅅ</sup> ㅅ와 <sup>ㅅ</sup> ㅅ과 <sup>ㅅ</sup> ㅅ왜 다 도 <sup>ㅅ</sup> ㅎ며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ㅁ	ㅅ <sup>ㅅ</sup> ㅅ기 <sup>ㅅ</sup> ㅅ픈 <sup>ㅅ</sup> ㅅ른	샘이 깊은 물은

- ① ㄱ을 보니 현대어와 달리 ‘의’가 부사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였군.
- ② ㄴ을 보니 현대어에 없는 ‘ㅅ’이 관형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군.
- ③ ㄷ을 보니 현대어와 달리 부사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예’도 있었군.
- ④ ㄹ을 보니 현대어와 달리 나열하는 마지막 체언에도 공동격을 나타내는 ‘와/과’를 썼군.
- ⑤ ㅁ을 보니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군.

15. <보기>는 ‘묻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묻다01 [-따] [묻어, 묻으니, 묻는[문-]]  
 「동사」  
 【…에】  
 「1」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 손에 기름이 묻다 / 옷에 잉크가 묻다 / 옷에 흙이 묻다.  
 「2」 ((‘묻어’, ‘묻어서’ 꼴로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 함께 팔리거나 섞이다.  
 ¶ 너희 갈 때 나도 좀 묻어서 가야겠다.  
 ∴

묻다03 [묻:따] [묻어, 묻으니, 묻고[묻:꼬]]  
 「동사」  
 【…에/에게 …을】((‘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1」 【…에/에게 -ㄴ지를】 【…에/에게 -고】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 / 선생님께 정답을 묻다 / 친구에게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 묻다 / 그는 나에게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물었다.  
 「2」 ((‘책임’ 따위를 목적어 성분으로 하여))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  
 ¶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다 /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부서에 그 책임 소재를 묻겠습니다. / 사장은 이 일에 실패하는 날에는 지난 일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묻겠다고 했다.

- ① ‘묻다01’과 ‘묻다03’은 모두 다의어로 볼 수 있겠군.
- ② ‘묻다01’과 ‘묻다03’은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군.
- ③ ‘묻다01’과 달리 ‘묻다03’은 불규칙적인 활용을 하는군.
- ④ ‘묻다03’은 ‘묻다01’에 비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더 많군.
- ⑤ ‘묻다01’ 「1」의 용례로 ‘가슴속에 비밀을 묻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6. 다음에 제시된 문장의 수정 방안을 고려하여 수정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수정 방안	수정한 문장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구속받기도 한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넣어 준다.	㉠
김 감독이 새로 만든 신작 영화를 발표하였다.	의미 중복 문제가 해소되도록 불필요한 성분을 삭제한다.	㉡
더욱 큰 문제는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주어와 호응이 되도록 서술어를 수정한다.	㉢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코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술어와 어울리도록 부사어를 교체한다.	㉣
이제는 실종된 환자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중의성이 해소되도록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 준다.	㉤

- ① ㉠ :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구속받기도 한다.
- ② ㉡ : 김 감독이 새로 만든 영화를 발표하였다.
- ③ ㉢ : 더욱 큰 문제는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④ ㉣ :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⑤ ㉤ : 실종된 환자의 권리를 이제는 찾아 주어야 합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국 고대 철학에서 가장 활발한 논쟁은 바로 인성론과 관련된 것이었다. 성선을 주장했던 맹자가 인성과 관련된 논쟁에서 한쪽 측면을 맡고 있다면, 성악을 주장했던 순자는 그 반대쪽에서 있었다. 그런데 맹자와 순자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다양한 인성론 논쟁은 순수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 철학적 함의를 크게 지닌 것이었다.

맹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선한 본성의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즉, 맹자는 인간을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에 의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내면에 갖추고 있으며,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막아 준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 맹자의 생각은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어 후에 왕권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의 저항 논리로도 사용되었다.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 기댈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맹자를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순자였다.

순자는 올바르게 질서 있고 공평하고 다스려진 것을 선(善)으로, ㉢ 치우치고 음험하고 어긋나고 혼란스러운 것을 악(惡)으로 보고, 사람의 본성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고치고 길들일 수 있는 외적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예의와 전장법도(典章法度)\* 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순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맹자의 성선설은 사변적이고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이 ㉣ 빠져 있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순자는 만약 사람의 본성이 진실로 올바르게 질서 있고 공평하고 다스려진 것이라면 성왕(聖王)과 예의(禮義)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맹자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순자의 생각은 현실주의적인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욕망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 채워 줄 재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재화가 ㉥ 바닥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람마다 분수를 정하고 이 분수에 따라 사람의 욕망을 정도에 맞게 길러 주어 욕망 때문에 재화가 바닥나는 일이 없게 했는데, 이것이 예(禮)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그의 견해로부터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통일된 대제국인 한(漢)나라에 들어서면서 맹자의 유학이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다. 현실 감각을 갖춘 사유보다 이상적인 맹자의 사상이 거대한 제국을 정치적으로 치장할 수 있는 사상으로 더 어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순자의 유학은 맹자에 비해 저급한 사유 혹은 이단적인 사유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통일 국가가 세워지기 전인 전국 시대에는 순자에 대한 평판이 맹자를 압도하였다. 당시처럼 혼란할 때는 맹자와 같은 이상주의적 사유보다는 탁월한 현실 감각을 갖춘 순자의 현실적인 사유가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순자의 사상에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 또한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감각 때문일 것이다.

\* 전장법도 : 규범과 규칙,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순자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순자의 사상이 가지는 시대적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③ 순자의 사상에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순자와 맹자의 사상에 내재된 공통 원리를 도출하여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 ⑤ 순자와 맹자의 사상을 비교하여 순자의 사상에 담긴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18.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인간은 외적 작용이 없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  
 ㉡. 인간이 가진 욕망이 도덕적 행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정치 제도의 질서를 통해 인간의 본성은 화평하게 교정될 수 있다.  
 ㉣. 인간은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9. '순자'가 <보기>의 '진나라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모든 사람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제(齊)나라 사람들은 의로웠지만, 진(秦)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제나라 사람들은 예와 의를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진나라 사람들은 그 성정(性情)에 따라 생활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 ① 강력한 법 제도의 적용을 통해 타고난 성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자신에게 내재한 선한 본성의 실마리를 확장하여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③ 옛 성현의 가르침 속에 내재된 선악을 분별하여 선(善)만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 ④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 타고난 성정을 확장해야 참다운 군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⑤ 예의와 전장법도를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도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 문맥상 ㉠~㉣를 대신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의지할
- ② ㉡ : 편중되고
- ③ ㉢ : 누락되어
- ④ ㉣ : 충족해
- ⑤ ㉣ : 고갈되게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NA의 구조는 1953년 영국의 크릭과 미국의 왓슨에 의해 밝혀졌다. DNA의 분자 구조는 이중의 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중 나선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나선은 뉴클레오티드의 당과 인산이 결합된 것으로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한 두 가닥의 나선에서 나온 염기가 결합하여 이중 나선을 형성하고 있다. 두 염기는 수소 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며 염기의 결합은 반드시 아데닌(A)은 티민(T)과, 구아닌(G)은 사이토신(C)과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뉴클레오티드의 어느 한쪽 가닥이 'A-T-C-G'라고 하면 상대 가닥 중 여기에 대응하는 염기 서열은 'T-A-G-C'로 되어 상보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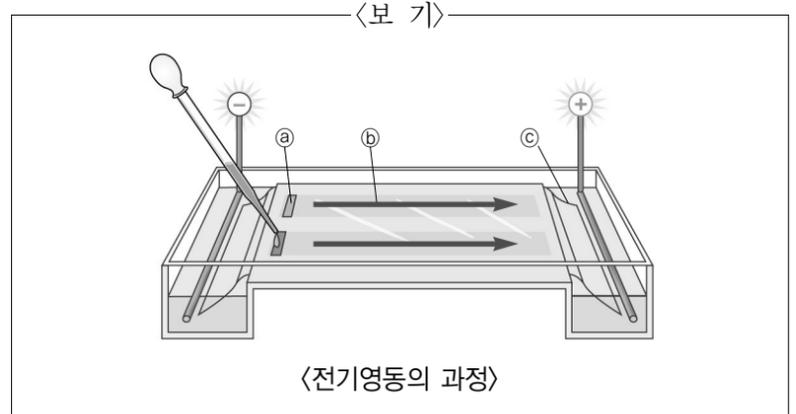
1985년 영국의 제후레이 교수는 DNA의 절편인 미니새털라이트 DNA 부위를 발견하였다. 이 부위는 극도로 개인차가 심하여 각 개체에서 검출된 DNA 분자 구조의 염기 서열 패턴이 완전히 다르며, 다만 일관성 쌍둥이만이 동일하다. 이 부위는 마치 손가락의 지문과도 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DNA 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 DNA 지문 분석 기술은 범죄 수사 및 친생자 감정에 획기적인 감정법으로 떠오르게 된다.

DNA 지문 검사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DNA를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다음 분리된 DNA는 제한 효소로 처리하여 DNA 절편들을 얻는다. 이 제한 효소는 DNA의 이중 나선을 따라 특이성이 있는 위치의 DNA 분자를 절단한다. 즉, 길다란 DNA 분자를 짧은 분획의 재생이 가능한 DNA 조각으로 부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절단된 DNA 절편들은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위해 배열한다. 이를 위해 시료를 넣을 작은 홈이 있는 아가로스 겔 판을 준비한다. 이 겔 판을 음극과 양극의 전하를 띠는 전기영동 장치에 올려놓고 시료를 겔 판의 홈에 넣는다. 그리고 전기장을 걸어 주면 절편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겔 입자 사이의 통로를 비집고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DNA의 작은 분자들은 큰 분자들보다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DNA의 분자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동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DNA의 분자 배열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영동이 끝난 후 겔을 변성화 용액에 담가 겔에 있는 DNA 절편을 모두 단일 가닥으로 변성화한 것이 DNA 지문이다. 그리고 이를 방사성 동위 원소에 반응시키고 X선 촬영을 하면 X선 필름에 여러 개의 막대 모양의 패턴이 나타난다. 이 막대 모양의 흑색 패턴을 판독하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각각 절반씩 유전자를 물려받으며, 여기에 개인의 염기 서열의 특이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친자 확인의 경우, 막대 모양의 띠를 분석해 보면 친자는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는 띠가 나타나고 친자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지 않은 다른 띠가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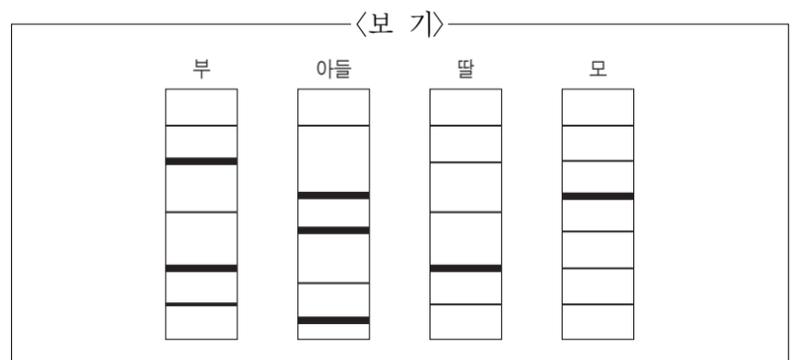
\* 전기영동 : 콜로이드 용액 속에 전극을 넣어 전압을 가할 때, 콜로이드 입자가 한쪽 극으로 이동하는 현상.

2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에는 재생이 가능한 DNA 절편들이 들어 있는 시료를 넣는다.
- ② ②의 과정에서 음전하를 띤 DNA 절편은 양극으로 이동한다.
- ③ ③의 과정에서 분자 크기로 인해 DNA의 분자 배열이 달라지게 된다.
- ④ 전기영동이 끝난 후 ③에 있는 절편들을 단일 가닥으로 변성화하여 DNA 지문을 얻는다.
- ⑤ ⑤에 있는 DNA 분자 구조의 염기 서열은 ③로 이동하면서 달라지게 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여 <보기>와 같은 DNA 지문을 얻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아들과 딸 모두 부모의 친자이다.
- ② 아들과 딸 모두 부모의 친자가 아니다.
- ③ 아들은 부모의 친자이지만 딸은 친자가 아니다.
- ④ 딸은 부모의 친자이지만 아들은 친자가 아니다.
- ⑤ 아들은 아버지의 친자이지만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희소성이란 ‘인간과 사회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하여 그것을 충족해 주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문제의 핵심은 선택의 문제이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 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그림이 ‘생산 가능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첫째, 한 사회의 자원으로 생산 요소인 노동력, 천연자원, 자본과 생산 기술이 주어져 있다. 둘째,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두 가지로 ㉡ 분류된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는 완전 고용하의 효율적 생산에서는 한 가지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줄여야 한다.

이러한 ㉢ 전제하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 사회가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 조합을 나타내 주는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곧 한 경제 내의 생산 요소들이 완전 고용되고 생산 과정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최대 생산 가능한 상품들의 조합들을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한다. 예컨대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가’라는 재화와

생산물	생산물 조합					
	A	B	C	D	E	F
가	0	1	2	3	4	5
나	25	24	22	19	14	0

〈표 1〉 생산 가능성 표

‘나’라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생산물 조합 가능성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성 표가 〈표 1〉과 같다고 하면 그 표를 바탕으로 ‘가’의 양을 x축으로, ‘나’의 양을 y축으로 삼아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곡선상의 점들은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대한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효율성을 표시한 조합들이다. 곡선 내부는 곡선상의 점들과 달리 최대 효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영역이다. 즉, 생산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자원의 일부를 낭비하거나, 자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원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열악한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곡선 외부는 현재의 기술 수준하에서 주어진 생산 요소만으로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점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은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과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 구분해 주는 경계선 노릇을 하므로 생산 가능 경계선이라고도 한다.

23.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
- ② 생산 가능 곡선의 기본적인 가정
- ③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양상
- ④ 생산 가능 곡선을 생산 가능 경계선이라고도 하는 이유
- ⑤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과 생산 가능 곡선 내부 사이의 차이

24. 〈표 1〉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혹은 ‘나’의 생산량이 0인 경우도 가정한다.
- ② 생산 요소들이 완전 고용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 ③ ‘가’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나’의 생산도 증가시킬 수 있다.
- ④ 노동력, 천연자원, 자본과 생산 기술이 주어진 것을 가정한다.
- ⑤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가’와 ‘나’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25.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왼쪽 그래프와 같은 ‘쌀’과 ‘옷’의 생산 가능 곡선은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여 준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를 지니는데, 이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왼쪽 그래프에서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생산량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컨대  $O r_1$ 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c_1$ 이라는 옷을 생산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수평축에 대표되고 있는 상품의 기회비용으로서, 여기서는 쌀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옷의 양이다. 그런데 쌀 생산을 증가시키기에 따라 쌀 1단위의 기회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된다. 쌀을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쌀  $r_4 r$ 만큼 추가로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옷 수량  $c_4 O$ 가 되겠군.
- ② 곡선 AF에서는 곡선 내부에 비해 자원의 낭비가 적게 이루어지겠군.
- ③ 점 E보다 점 B에서 쌀 1단위의 기회비용이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겠군.
- ④ 곡선 AF가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것은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로군.
- ⑤ 점 D에서의 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쌀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옷의 양이로군.

26. ㉠~㉤의 문맥적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신입 사원 김 군이 총무과에 배분되었다.
- ② ㉡ : 식물을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 ③ ㉢ : 헌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한다.
- ④ ㉣ : 여러 부품의 조합으로 시계를 만들 수 있다.
- ⑤ ㉤ : 우리는 옳고 그른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 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쾅쾅 짖어 그 짚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떠나면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 주고 있지 않느냐.

[A]

[B]

[C]

- 송수권, 「까치밥」 -

\* 말쿠지: '말코지(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의 평안도 방언.

(나)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 안도현, 「연탄 한 장」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사형으로 문장을 종결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④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간이 처한 현실은 결핍과 시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가기에는 험난하고 외로운 삶이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희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가)와 (나)는 남을 위한 배려와 희생을 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의 '눈'은 결핍과 시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나)의 '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의 '외로운 길손'은 배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나)의 '한 덩이 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의 '까치밥'은 타인을 위한 희생과 배려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나)의 '연탄 한 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의 '떠나면 길'은 인간이 가야 할 험난한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나)의 '미끄러운' 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의 '따뜻한 등불'은 타인의 배려와 희생으로 얻는 삶의 위안이라는 점에서 (나)의 '따스한 밥과 국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 [A]~[C]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B]는 그 자연물을 인공물과 연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A]는 시간의 대비를, [C]는 공간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다.
- ③ [B]는 과거의 삶에 대한 회고를, [C]는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 ④ [A]~[C]는 모두 동일한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A]~[C]는 모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함께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매화는 벌써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아히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하야라 <춘>

잔화(殘花) 다 딛 후(後)의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둠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롭 씨오자 <하>

흰 이슬 서리 되니 7올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흰 빗치 피거고야  
 아히야 비즌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하노라 <추>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압 뒤희 눈이 던다  
 모침(茅簷) 춘 빗치 석양(夕陽)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하로라 <동>

이바 아히돌아 새 히 온다 즐겨 마라  
 헌서헌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 히 즐겨하다가 이 ㉠ 백발(白髮)이 되얏노라 <제석>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나) 한산(寒山) 어른 송계신보(宋季愼甫)가 나와는 내외종(內外從)\* 이 된다. 내가 일찍이 그 집에 가 보니, 뒤로는 감악산(紺嶽山)을 등지고 앞으로는 큰 들을 임하여 초막집을 한 채 엮어 한가히 휴식 하는 곳으로 삼았었다. 그 당명(堂名)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주인 이 말하기를, “내가 ‘취한(就閑)’ 이라 이름하려고 하는데, 미처 써 붙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한(閑)은 본디 이 당(堂)이 소유한 것이거니와, 우리 형은 나이 70세가 넘어 하얀 수염에 붉은 얼굴로 여기에서 즐기며 바깥세상에 바랄 것이 없으니,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운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건대, 당 한편에 애완(愛玩)하여 심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 바로 대[竹]와 국화[菊]와 진송(秦松)과 노송(魯松)과 동백(冬柏)이요, 게다가 빙 둘러 사방의 산에는 또 창송(蒼松)이 만여 그루나 있으니,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세한(歲寒)의 절개가 있어 한서(寒暑)에 따라 지조를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형께서는 늙을수록 건장하여 신기(神氣)가 쇠하지 않았는데도, 사방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이곳에 은거하여,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춤추고 여기에서 마시고 취하고 자고 먹고 하니, 이 여섯 가지를 얻어서 벗으로 삼는다면 그 취미나 기상이 또한 서로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께서는 또 세상 변천과 세상 물정을 많이 겪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교우(交友) 관계가 처음에는 견고했다가 나중에는 틈이 생기어, 득세한 자에게는 열렬히 붙좃고 실세(失勢)한 자에게는 그지없이 냉담하며, 평평거리는 자리에는 서로 나가고 적막한 자리는 서로 기피하는 것이 세태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는 이런 가운데 성장하면서도 능히 풍상(風霜)을 겪고 우로(雨露)를 머금어 이제까지 울울창창하여서 앉고 눕고 기거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인과 함께 하고 있으니, 차라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 세상의 걱정을 피해서 나의 천진(天真)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까. 이 당에는 실로 이 여섯 가지가 있고 ㉡ 옹(翁)께서 그 가운데에 처하시니, 어찌 ‘육우(六友)’라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한(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인하여 나에게 그 기문(記文)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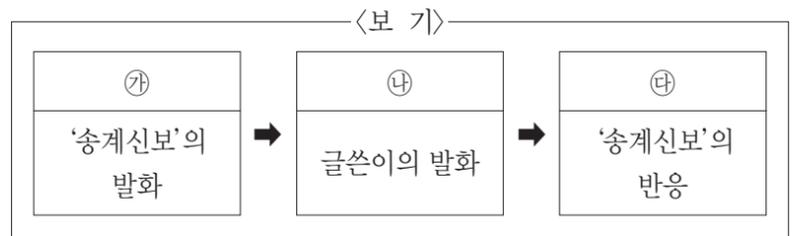
- 임제, 「육우당기(六友堂記)」 -

\* 내외종 : 내종사촌과 외종사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내외형제

3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규칙적인 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특정 어휘를 반복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35. (나)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는 ‘송계신보’가 당(堂)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제시되어 있다.
- ② ㉡는 ㉠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 ③ ㉢에는 글쓴이가 바라본 ‘송계신보’의 인간됨이 표현되어 있다.
- ④ ㉢에는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⑤ ㉢에는 ㉡를 긍정적으로 수긍하려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 혹은 글쓴이에게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화자 혹은 글쓴이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에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품성이 드러나 있고, ㉡에는 글쓴이가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화자의 경계가, ㉡에는 세상 사람을 멀리하려는 글쓴이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에는 늙음에 대한 화자의 한탄이 내포되어 있고, ㉡에는 지조를 지닌 존재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이 내포되어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을 진위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으로서의 도덕으로 보는 도학적인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세속의 일을 떠나 한가로움을 즐기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세속과는 단절된 초월적인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전가적(田家的)인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노동은 없이 단지 목가적(牧歌的)인 흥취만 담은 전원적인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여름날 '조름'을 즐기고 있다는 것에서 자연을 여유로운 공간으로 여기는 모습이 엿보이는군.
- ② (가)의 화자가 '채전'을 갈면서 직접 노동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연을 전가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모습이 엿보이는군.
- ③ (가)의 화자가 가을의 누런 벼를 보고 술을 먹으면서 '추홍'에 젖어 있는 것에서 자연을 전원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모습이 엿보이는군.
- ④ (나)의 주인이 '사방'을 다니지 않고 당에 은거하는 것에서 자연을 초월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모습이 엿보이는군.
- ⑤ (나)의 글쓴이가 당명을 '육우'라 지으라고 권고하는 것에서 자연을 도학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모습이 엿보이는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선옥은 절에 가서 공부를 하다 어느 날 밤에 남몰래 집을 찾았는데 침소에 비치는 남자 그림자를 보게 되어 부인 이 씨의 행실을 의심하게 된다. 선옥은 괴로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그 길로 집을 떠나 종적을 감춘다. 선옥의 아버지 수증은 자기 재산의 반을 걸고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재산을 노린 조카 김형욱은 김홍룡을 선옥으로 꾸며 데리고 온다. 선옥의 부모는 가짜 선옥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부인 이 씨는 가짜 선옥을 알아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임금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연수를 도어사로 제수한다. 진 어사는 전국을 돌며 진짜 선옥을 겨우 찾아 자신의 종인(從人)\*으로 세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진짜 선옥을 밝히기 위한 송사를 진행한다.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 씨의 절개도 가늠하거니와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와 이 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 씨로 수양딸을 정하였다. 이 씨가 부녀지례(父女之禮)로 뵈니 어사가 선옥과 이 씨로 가까이 앉히고 이 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 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 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도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차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가치\*가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펴려니와 우선 내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 하였다. 남자가 말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實相)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수삼(羞澁)하뇨\*?”

선옥이 그제야 남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월일야(某年月日夜)에 중의 의관(衣冠)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기롱(譏弄)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며,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리하면 누명(陋名)이 나타나 내 집안의 명성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 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원(屈原)을 찾되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하여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댄 어찌 실가(室家)의 낙이 있으리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 하여 그 길로 운산(雲山)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 대사의 상좌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은휘(隱諱)치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댄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에 있으며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대청마루 아래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오?”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육 년 전 모월 모일 밤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만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시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것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남자에게 여주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나이까?’ 하니, 남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빠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오니 이 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나이다.”

라고 하였다.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신의 지혜가 없음과, 빙설 같은 남자를 의혹하던 일과, 남자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회막급이라. 바로 한번 죽어 남자에게 사례(謝禮)하려고 하며 즉시 송정에 내려와 부친과 모친의 앞에 나아가 땅에 엎어져 통곡하고 말하였다.

〈중략〉

“그대 어떤 사람이건대 우리를 부모라 하느냐?”

선옥이 더욱 망극하여 고하였다.

“부친과 모친은 어찌 욱자(辱子)를 모르시나이까? 욱자가 분명 선옥이오니 자세히 보소서.”

라고 하니, 가짜 선옥이 또한 통곡하고 말하였다.

㉠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이제 이 같은 윤상(倫常)의 변고가 있으니 차라리 소자가 진작 세상을 버려 양친의 아혹(誣惑)\*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처사 부부가 자세히 보니 가짜 선옥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 진위를 분별치 못하여 두 선옥을 보며 더욱 심황(心惶)하여 미친 듯, 술에 취한 듯 정신없이 있는데, 어사가 수증과 두 선옥을 당에 올려 앉히고 수증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도 두 선옥 중에서 진위를 모르느냐?”

처사가 황공하게 대답하였다.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오니 눈이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사오며, 늘그막에 이 같은 고금에 없는 가변(家變)을 만났으니 도무지 내가 혼암(昏暗)한 탓이리라. 누구를 한하리오? 바라건대 대인은 살피시어 부자의 천륜으로 문란함이 없게 결처(決處)하심을 천만 복축(伏祝)하나이다.”

어사가 웃고 말하였다.

“옛글에 지자(知子)는 막여부(莫如父)라 하였나니, 그 아버지가 분명치 못한 자식을 남이 어찌 알리오? 그러나, 그대 분명 선옥을 알려는가?”

라고 하고 협실을 열고 이 씨를 불러 말하였다.

“너의 장부의 진위를 분석하여 존구(尊舅)의 고흥(蠱惑)함을 해석(解釋)케 하라.”

남자가 처사께 여주었다.

“가부의 앞니에 푸른 점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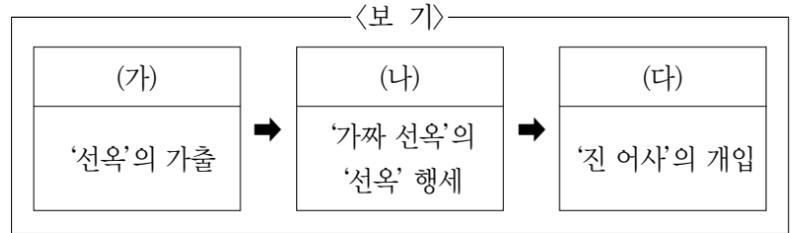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華山重逢記)」 —

- \* 종인 : 남에게 종속되어 따라다니는 사람.
- \* 가부 : 자기 남편을 일컫는 말.
- \* 가치 : 자기 부인을 일컫는 말.
- \* 수삽하다 : 부끄럽고 수줍은 데가 있다.
- \* 아혹 : 꾀이하고 의심스러움.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특징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의 역순행적 배열을 통해 인물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설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는 윗글의 서사 전개를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니의 푸른 점’은 (가)의 원인이 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 ② (다)에서 ‘진 어사’는 ‘선옥’의 진위 여부를 미리 알고 송사를 진행하였다.
- ③ ‘선옥’은 (가)에서의 행동을 (다)에서 후회하게 되었다.
- ④ (가)에서 생긴 ‘선옥’의 오해는 (다)에서 ‘옥란’의 진술에 의해 해소되었다.
- ⑤ ‘이 씨’가 (나)의 상황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0.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럴듯한 변명을 찾지 못해 적당한 말로 둘러대고 있군.
- ②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해 있는 사실 그대로 실토를 하고 있군.
- ③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장황한 말로 연막을 치고 있군.
- ④ 부친과 모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대방의 말에 적극 찬동하는 맞장구를 치고 있군.
- ⑤ 자신에 대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극단적인 의지를 제시하여 선수를 치고 있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신대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인 황만근은 전쟁 때 아버지가 죽고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느 날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해 주고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얻지만, 여인은 곧 떠나 버린다. 평소 어눌한 말과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반근이'라고 놀림을 당하던 그는 '농가 부채 탕감 축구'를 위한 전국 농민 총결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운기를 끌고 나갔다가 사라지게 된다.

“어제 썰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썰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 밋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기 백 밋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썰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썰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력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썰기 대회 꼭 나오라 켜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축구 전국 농민 총결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 보나 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이 신문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 았나.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 요. 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중략>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용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 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겠나.

질국 다 뺏기고 나앉는 거 아니요.”

“뺏아 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기 없을 낀데. 암만 빌빌하는 닭이라도 닭 모가지를 비틀만 인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전부가 아이지.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마 된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 마이지.”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 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향유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만근은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 가며 편잔을 들었다.

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 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내 이러키까지 말을 해도 소양이 없어. 보나 마나 내일, 용자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민서 학수같이 걸농사 짓는 놈들이나 밋 올까. ㉣ 만그이 자네같이 똑 부러지기 농사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 끼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걸은 현 경운기애다 농사짓는 놈 다 직이라고 씨불이 달고 가야 된게…….”

민 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 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 바람이 술로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 갔다. 민 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던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푹푹하기 잘도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 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별(별)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푹푹푹푹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 기요.”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는 아는 게 없었던 민 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A]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 끼라.”

“동네에서는 내가 켈 오래 했으께. 경운기도 마이 늙었다. 고집이 시가이고 나 아이만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통창까지 환하게 안게 말을 듣는 기라.”

“……내일 썰기 대회에 가십니까.”

“내사 뭐 어머니 밥도 끓이 디리야 되고……모르겠소. 구장은 꼭 오라 카는데.”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개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 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육십대는 돼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뺨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굵은 어깨를. 민 씨는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 씨의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 들었다.

다음날 새벽, ㉠ 민 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 탁, 탁……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타닥, 다, 타닥, 탁, 탁, 탈, 탈, 탈, 탈, 탈탈탈탈……그 뒤에도 쫓기 대회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 씨는 까무룩히 잠이 들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토적이고 구수한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황만근이 평소에도 자주 과하게 술을 마셨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이장의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농민 쫓기 대회에 회의적인 마을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이장이 황만근을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농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민 씨가 황만근에게 호기심을 갖고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43. [A] 부분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리숙한 등장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4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는 ㉠와 ㉡가 대조를 이루면서 \_\_\_\_\_  
황만근의 모습이 강조된다.

- 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 ②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 ③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배려하지 않는
- ④ 어리석어 보일 만큼 순수하고 우직한
- 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1990년은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등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겪었던 시기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던 농민들은 이 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서는 농촌 부채 증가로 인한 농민들의 파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불신, 부채로 인해 각박해진 농촌의 모습 등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①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라는 말로 보아 농민들이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보아 농가 부채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농가 부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군.
- ④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 마이지.”라는 말로 보아 농민들이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경운기에다 농사짓는 놈 다 직이라고 씨불이 달고 가야 된 게…….”라는 말로 보아 농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입(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오.